

대학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외국인 유학실태 분석 및 지원방향 도출: 공과대학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이태식*, 전영준**,†, Zia Ud Din **, 구자경**

한양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수료**,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Analysis of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Conditions and Suggestions for Promotion of Internationalization of University: Focused on International Students of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Tai Sik Lee*, Young Joon Jun**,†, Zia Ud Din ** and Ja Kyung Koo**

Professor, Dept. of Civil & Environmental System Eng., Hanyang University*

Ph.D. candidate, Dept. of Civi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Master Course, Dept. of Civi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derives the suggestions for promotion of internationalization of universities. The reasons for increase in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were analyzed and present condi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has been investigated. Research and analysis of International students support program of government was performed. Moreover, the questionnaire was prepar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ies for the support on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engineering programs at graduate level. Finally, suggestions for government, university and education institutions have been made for the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programs to promote internationalization of universities.

Keywords: International student, Actual condition of studying abroad, Internationalization of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대학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통계자료에 따르면, 1970년 321명에 불과했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990년에 2,237명, 2000년에

6,160명, 2007년에 49,270명으로 급격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은 고등교육기관 정원의 확보나 재정확충의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준다. 예로 문화적 측면에서 국내 학생들은 외국 유학생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언어,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 걸

논문접수일: 2009년 1월 6일

최종수정일: 2009년 2월 15일

논문완료일: 2009년 2월 16일

† 교신저자: 전영준

쳐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노종희, 이일용, 유길한, 2003).

특히 국내 공학분야 고급인력 육성의 경우 전통적 사농공상(土農工商)적 사고와 더불어, 최근 이공계기 피현상 등으로 인해 국내 공과 대학원으로의 유입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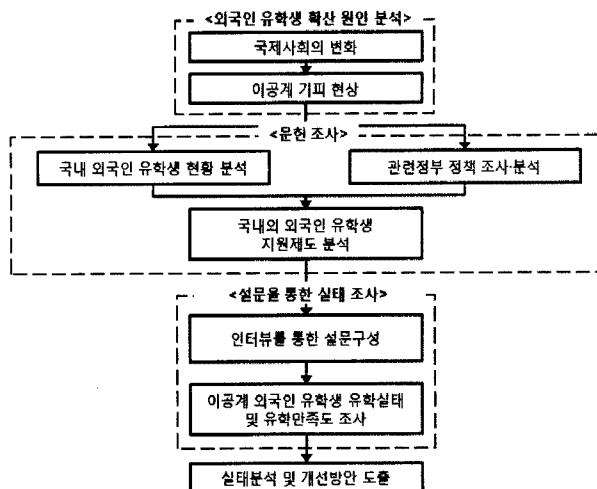
이와 같은 장점들로 인해 정부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다수의 대학 및 지원 단체의 경우 지난 200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 수립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체계적인 관리 보다는 유치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최근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정부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각 대학 역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외국인 유학생의 부적응 및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국내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공과대학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 유학생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 및 대학당국이 수립 가능한 합리적 지원방향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수행 내용 및 그에 따른 방법은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구진행 순서는 먼저,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이 확산되고 있는 원인분석과 더불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및 관련정부 정책의 조사·분석을 통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 관련 외부지원단체 및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선진국 정부 및 대학의 지원제도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현황 및 선진국 사례 조사와 국내 공과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인터뷰를 기초로 국내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유학실태 및 유학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학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외국인 유학실태 분석 및 지원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국내 대학에 수학중인 외국



[그림 1] 연구진행 흐름도

[Fig. 1] Research Process Flow Diagram

인 유학생 중 공과대학 대학원생을 연구의 범위로 제한하였다. 이는 최근 정부를 비롯한 대학 및 각종 지원 단체에서 이공계 석·박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공과대학 외국인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공의 특성상 오랜 시간 연구실에 상주하며 학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과의 관계 형성 등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II. 대학교육의 국제화와 이공계 기피현상

1.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대학교육의 국제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WTO출범, 이후 도하개발아젠다(DDA) 및 미국 등을 비롯한 FTA 협상까지 무역장벽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들은 교육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WTO체제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말미암아 교육에 대한 타율적인 개방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교육열과 많은 교육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국내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정환규, 2002).

이에 따라 고등교육의 경우 목적, 내용, 방법 면에서는 물론 교육적 결과를 인정하고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즉, 국제적 경험과

<표 1> 우리나라 유학·연수 수지 (백만 달러)

<Table 1> Korea's Annual Income of Studying Abroad and Training Program

구 분	'99	'01	'03	'05	'07
국내수입액	38.7	10.8	14.8	10.2	46.5
해외지급액	829.7	1,070.0	1,854.7	3,371.4	5,009.8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외국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국제 통용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제도 (ABEEK 등)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 교육기관으로의 높은 유학수요는 국내 우수인재의 해외유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유학·연수 수지에 있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표 1>), 이 외에도 고교졸업자 수의 감소에 따라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미충원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에(05년도 기준 8.9%)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국내 입학자원 축소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현실을 기초로 극복해야 할 가장 첫 번째의 단계로서 대학의 국제화를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외국인 유학생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

이는 대학교육의 국제화 현상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확충은 교육시장개방에 대비하여 현재 대부분의 국내 대학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축을 이루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즉, 외국 학생들을 국내 대학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대학의 국제화, 세계화에 커다란 기폭제가 될 수 있기에(편상훈, 2005)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 교육의 국제화도 그만큼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공계 기피현상과 외국인 유학생

1997년 시작된 IMF로 인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여파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표적 이공계 분야라 할 수 있는 기업 R&D부분의 경우 당장의 기업 수익과의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대량 해고를 경험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공계 출

신의 경우 취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공계의 경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물론 대학에서도 교과목의 학습 부담이 많고 어려운데 비해 졸업 후에 취업전망이 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업 이후 승진, 처우 등에 있어 불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이용석, 2008).

둘째, 초중등 과학교육의 부실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자연계열 선택 중 과학영역을 꺼려하고,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과학영역의 선택을 더욱 더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2001년 기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연계열 응시율 27%). 이들의 원인은 중고등학교 교육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과학과목 같은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과 더불어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실험보다는 이론 위주의 암기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과학에 흥미를 잃기 쉬우며, 보다 학습하기 쉽다고 생각되는 인문계를 선호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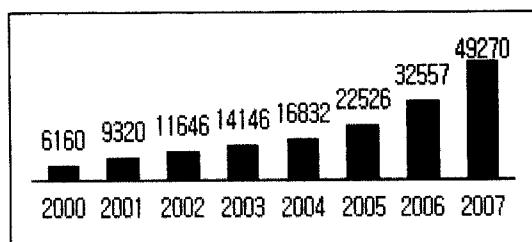
셋째, 언론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신문들은 '이공계 위기'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하여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자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기업인, 연구원, 대학(원)생, 각종 학회와 단체들까지 대거 참여하여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이은경, 2006).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었고, 이공계 대학졸업자 역시 대학원 진학을 기피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결국 대학의 연구 실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과정을 통한 연구 인력 부족을 매우는 추세이며,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 역시 같은 사회적 현상이기에 이에 대한 심층적 고려와 더불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적 자원 활용을 위해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생활 실태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다.

III.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국내외 지원정책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유형별 배경은 언어 연수, 대학생, 대학원 석·박사과



[그림 2]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Fig. 2] Annual International Students

정, 박사후 과정 등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엄혜경, 2003).

[그림 2]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2~3년 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표 2>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지역별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이 전체 대비 92.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 중 중국 유학생(33,650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고, 한국과 빈번한 경제적 교류나 미디어의 한류 열풍으로 인한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 가능하다(엄혜경, 2003). 그러나, 최근 대다수의 대학들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위치한 대학들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유학 지원프로그램 개설 역시 아시아권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출신지역의 다양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유학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전체 대비 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어학연수가 28.8%로 뒤를 잇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공계 부족 인력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대체하여, 대학의 연구인력 확충과 더 나아가 지속적 국가 경쟁력 원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에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세심한 관찰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

국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은 크게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각 대학 및 관련단체의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2004년 수립한 'Study Korea Project'를 들 수 있으며, 2005년 12월 강화 방안 수립을 통한 보완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목표(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 명 유치)를 조기 달성하였다. 이에 정부는 기존 목표의 조기달성을 따라 향후 2012년까지의 중·장기 목표 설정 필요로 인해 지난 2008년 7월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을 수립·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8가지의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추진과제들이 아직까지 역시 유학생 유치에 대한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 시각의 과제들로서 판단된다. 또한, 일부 추진과제의 경우 유학생 생활환경 개선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 각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가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미미한 수준(정부초청장학생 지원 사업을 제외한 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액 26.1억 원)으로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표 3>).

또한,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시설물 건립 사업과 더불어 유학생 활과 밀접한

<표 2> 출신지역별, 과정별 유학생 수(2007년 기준)

(단위 : 명)

<Table 2> International Students Place of Origin and Type of Course Wise

지역	어학연수	유학 과정별				기타	합계
		이공계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		
아시아	13,188	17,640	8,341	2,503	1,756	2,194	45,622
아프리카	42	83	141	16	1	8	291
오세아니아	26	29	36	7	10	34	142
북미	472	291	383	78	66	402	1,692
남미	56	87	70	8	7	12	240
유럽	400	192	254	30	27	503	1,283
합계	14,184	18,322	9,225	2,642	1,867	3,030	49,270

*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도 국내외 유학생 통계

<표 3>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련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요예산

(백만 원)

<Table 3>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s 2008 Budget to Support International Students

사업명	구분	08년도 실적	비고
정부초청장학생 지원	물량	1,500명	2012년 415억 원까지 단계별 상승 예정
	금액	18,492	
영어전용강좌·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개설 지원	물량	20교	선정 학교당 1억 원
	금액	2,000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참가	물량	7개국	10개국까지 확대
	금액	483	
한국유학안내시스템 운영	물량	10개어	기존 홈페이지 지원 언어 확대
	금액	130	
대학-기업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설 지원(신규)	물량	-	2010년 시행 예정
	금액	-	
08년도 예산 합계		21,105	-

※ 교육과학기술부,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관련이 있는 생활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각 대학별로 관련 대상자를 중심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유학홍보에 상당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대부분의 사업이 각 대학 및 관련 단체 개별사업의 지원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점 역시 내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최근 국내 대다수 대학들의 지원 정책 및 관련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종합평가를 비롯한 각 기관의 대학평가 항목에 국제화 부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외국인 교수와 외국인 학생의 비율을 의미하고 있기에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의 투자에 역점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의 경우 부족한 정원확충을 위한 한 방편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제교류처', '대외협력처', '국제교류팀', '국제협력실'과 같은 국제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대학의 국제협력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국제 교류 및 협력이라는 큰 틀 안에 상당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 대학과의 자매결연, 교수 및 학생 교환, 학술교류 등과 관련한 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것 이외에 국제회의 개최, 교직원 연수, 외국인 교원 및 숙소관리, 외국인 초빙과 관련한 사무, 대외 의전, 대외 홍보, 어학연수 및 유학 상담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과 프로그램 운영, 국제 계절

학기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업무 중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역시 국제협력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전담부서의 신설은 대학교육의 국제화 측면에서 활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다 고 판단되지만, 외국과 같은 지원 전담인력 및 행정 지원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학사일정 및 관련 문건에 대한 번역서비스 등이 전무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화 된 자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대학의 경우 외국과 같이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one-stop 지원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기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생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4년도에 공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대학별 우수사례(<표 4>)에서 그 한계점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지원 체계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주요 대학들의 경우 역시 외국인 유학생 생활 지원제도로 주로 한국 학생을 1대 1 도우미로 배정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세심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운영이 아닌, 상당부분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문제점 역시 안고 있는 실정이다.

<표 4> 국내대학의 유학생 지원제도 우수사례
 <Table 4> Best Examples of Universities'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Program

대학명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전략
강릉대학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유학생 유치
동양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연계편입제도
신라대학교	외국 기관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중앙대학교	해외 동문회를 통한 대학 세계화 프로그램 홍보
한동대학교	기업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한양대학교	유학원을 통한 홍보,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호서대학교	현지 유학생 유치 사무소 개설

* 교육과학기술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

3. 주요 선진국의 해외유학생 지원 정책

정부 및 각 대학의 해외유학생 지원정책 및 방향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의 경우 1970년 이래 현재까지 외국인 유학생 수에 있어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높은 교수의 질 및 연구풍토, 첨단 연구시설, 다양하고 신축성 있는 교과과정 등으로 인해 전 세계 외국인유학생의 선호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도급 대학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그리 큰 관심을 보여 오지 않았으나, 80년 레이건 행정부 출범 이후 주 재정사정의 약화와 고등교육기간에 대한 지원감소는 미국의 주립대학들로 하여금 새로운 자구책을 모색토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외국인유학생 유치의 극대화 노력이며, 최근 미국의 대학들은 사립, 주립을 불문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주요 전략목표로 설정,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김화영, 2005).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전략수정은 우리나라의 현 실태와 상당부분 유사하기에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과 같은 미국 대학의 대표적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부분의 종합대학들은 외국인유학생 및 교육의 국제화를 전담하는 부총장직제를 두고 있다. 전담 부총장직제의 도입은 대학 행정체계 내에서 유학생 문제를 포함한 국제교육 사안의 비중을 현저히 높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거의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이 국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의 국제화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

고, 주요 사업을 확정시키는 동시에 국제화와 관련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국제담당 부총장을 자문하는 기구를 해당 대학 동문, 또는 해당 대학과 관련된 국내·외 저명인사들로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문기구는 정부, 기업,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국제화 관련 정책 대안과 전략을 공동으로 숙의하고 있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대학의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책임자들을 하나의 행정체계로 묶어 놓은 국제교육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통상 국제 담당부총장을 의장으로 하는 이 협의회는 유관 부서간의 협력과 조정을 극대화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미국 대학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해외유치 확대를 위해 일반기업의 시장 침투 전략을 방불케 할 정도의 유치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담당 부총장을 중심으로 국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상당히 여러 대학에서 아시아의 주요도시에 대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유학생 유치홍보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둘째, 최근 미국 대학들은 해외 동문회의 결성 및 유지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그 주된 목적은 동문들과의 연계를 돋독히 하자는데 그 일차적인 목표가 있지만 해당대학의 해외홍보, 해외에서의 발전기금 모금, 그리고 유학생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김화영, 2005).

일본의 경우는 정부주도로 1983년 '21세기 유학생 정책'을 수립하여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계획에 따른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유학중인 학생 수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83년 약 1만 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유학생 수가 05년 기준 약 12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일본 문부성은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목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확대 정책을 살펴보면, 유학 정보제공의 충실, 대학 간 교류 협정의 정비와 활용, 영어 수업 교육과정 확대, 입국시 신원보증에 관한 기관 보증의 문제, 장학금 지급 확대, 힐스테이(Home Stay) 가정 확보 및 유학생 기숙사의 정비, 지역사회에서의 수용체제 정비 등 유학생 활 전반에 걸친 지원정책을 구축·시행하기에 우리에게 시사하

<표 5> 일본의 대표적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
<Table 5>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Policy of Japan

단계	지원 제도
입학단계	① 유학정보 제공 및 유학 상담 및 유학 박람회 개최에 따른 정보 제공 ② 유학자의 입국 및 체류관련 수속 비자 관련업무 지원 ③ 일본 유학 준비 교육 체제로 외국유학생에 대한 예비교육 실시 ④ 국비외국인유학생 제도를 통한 모집 ⑤ 사비외국인유학생의 입학 신고 및 안내 ⑥ 일본유학시험 실시
재학단계	① 유학생의 교육지도 체제로 일본어 교육에서 학위취득까지의 지도 ② 장학금 및 숙소에 관련된 생활 등의 지원과 의료 아르바이트 지원 ③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유학생지원과 지역관계 활성화 ④ 국제연규교류대학촌 설립에 따른 유학생연구 및 생활 등 지원
귀국단계	① 일본국제교육협회 사업 : 귀국 유학생에 대한 전문잡지와 연구지 송부 및 단기 연구제도로 귀국 한 후 5년이 지나고 만45세 미만으로 재학 대학으로 90일 이내로 공동 연구 참가지원 등과 단기 파견 유학생 DB구축에 의한 양방향 네트워크 정비 ② 일본 학술 진흥회에 의한 각종 지원 사업 제공 ③ 외무성에 의한 각종 지원 사업 제공

※ 김화영(2005),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 재구성

는 점이 많다(<표 5>).

다음으로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살펴보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이후 여러 가지 장학금 제도와 정착 보조비 등을 제공하여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유학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규모를 고등교육 재학생의 약 2%에 해당하는 50만 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 지원을 발표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가속화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Chinese Scholarships Council, CSC)에 중국정부 장학금을 위탁하여 외국 학생의 신입생 모집 및 일상사무의 관리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세계 유명대학 유치 등 싱가포르를 세계 교육시장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Global Schoolhouse' 계획을 지난 2002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지난 1998년 이후 16개 대학을 분교형태(8개교) 또는 공동학위 프로그램 운영형태(8개교)로 유치하여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꾀하고 있어, 2007년 기준 약 8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경우는 전통적인 유명 대학이 많아 미국 다음으로 외국 유학생이 많다(2006년 기

준 33만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대를 위해 '아카데믹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5개년 계획을 발표, 영국 유학을 위한 통합 안내시스템인 '영국 교육(Education UK)'이라는 브랜드를 개설하였다. 즉, 유학생들이 대학을 결정하기 이전에 공부할 나라부터 선정한다고 판단하고 영국 대학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는 외국 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일반 대학과 경영학 석사(MBA) 등을 세분화하여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공관 등과 협조해 영국에서 유학 하려는 학생의 비자 발급 절차 등도 간소화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출신 학생이 크게 늘면서 이들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유학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들 학생을 위한 별도의 장학금 제도도 개설하였다. 이를 통해 2011년까지 고등 교육과정에 7만 명의 유학생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외국인 유학생을 일찍 받아들이기 시작한 교육 선진국의 경우에도 외국인 유학생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 유학생 관련 교육 선진국의 제도 및 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IV. 외국인 유학생 유학 실태조사 및 학업·생활 만족도 조사

1. 공과대학 외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활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대학에서 유학중인 공과대학 외국인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효율적 외국인 유학생 지원방향 수립을 위한 유학실태 및 학업·생활 만족도 조사, 향후 개선을 위한 카테고리별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 조사기간: 2008년 12월 22일~31일(10일)
- 조사대상: 국내 공과대학 외국인 대학원생
- 조사방법: 방문 및 e-mail 등을 통한 설문조사
- 응답자수: 64명¹⁾

또한,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 처리는 SPSSWIN 12.0 및 ExpertChoice 11을 사용하였으며, 유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량 분석, 만족도, 적응도 등의 분석을 위한 분산분석(유의수준 5%)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우선순위 파악을 위해 AHP기법 역시 적용하였다.

가. 설문 대상자의 기초배경 변인 분석

본 설문에 응답한 이공계 유학생의 기초배경 변인별 특성은 <표 7>과 같다.

주요 기초배경 변인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연령의 경우 25~29세가 전체의 54.7%, 30세 이상이 3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기 때문에 판단된다. 이는 성별의 경우 역시 남자가 전체의 71.9%를 차지하고 있어 기존 전체 유학생의 성별 비율이 여자가 더 높았던 기존의 일반적 설문조사와는 달리 이공계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출신국적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많은 출신국가로서 전체의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권 유학생이 전체의 84.4%를 차지하고 있어 유학생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권 국가의 특성에 맞추어 모국어 역시 다양한 분포를 갖고 있으며, 현재의 이공계 대학원 수업이 대부분 영어 혹은 한국어로 개설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 선별 시 일정 어학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유학안내시스템(NIIED)을 비롯한 대다수의 한국유학안내 프로그램들이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유학

<표 6> 설문의 영역별 구성 내용

<Table 6> Details of the Questionnaire

항목	내용	문항수	비고
기초조사	나이, 성별, 대학, 국적, 교육과정, 전공분야, 언어, 기존 해외유학경험, 한국거주 기간	12	명목척도, 주관식
유학경로, 유학동기, 유학생활 및 기타유학현황	유학신청경로, 신청경로시의 어려움, 유학결정 사유, 대학결정 사유, 전공결정 사유, 장학금 수혜 여부 및 금액, 거주형태, 생활비, 어학성적, 영어능력, 한국생활의 난해사항, 거주계획, 가족동반 여부	21	명목척도, 주관식
학업 및 교내외 유학생활 만족도	연구실 상주유무, 연구프로젝트 참여경험, 전공수업, 지식활용도, 교수 만족도, 학교행정, 출입국 서비스, 비자서비스, 건강보험	25	등간척도
한국학생들과의 교류	한국학생과 식사, 한국친구 집 방문, 한국학생과의 교내외 행사참여, 문화적 차이와 사고방식 차이의 어려움, 정보수집의 편리도, 차별여부, 학업에 있어 한국학생들과의 협업 정도, 종교 문제	7	등간척도
향후진로	본국 및 한국 취업 의향, 졸업생의 취업 경향, 본인 경쟁력 향상 유무	4	등간척도
외국이 유학생 지원방향 수립을 위한 범주별 중요도	재정문제, 대학 및 정부의 지원, 교육의 질을 범주별로 구성하여 중요도 분석	-	AHP

* 설문지의 경우 영어로 작성

1) 실제 응답부수는 78부(응답률 63.9%) 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자는 설문분석에서 배제하였다.

<표 7> 응답자의 기초배경 변인별 빈도 분석

<Table 7> Analysis of Respondent Personal Information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46	71.9
	여	14	21.9
나이	24세 이하	6	9.4
	25~29세	35	54.7
	30세 이상	23	35.9
국적	중국	22	34.4
	일본	5	7.8
	파키스탄	12	18.8
	아시아 기타	15	23.4
	유럽	6	9.4
	북미	4	6.3
모국어	중국어	22	34.4
	일본어	10	15.6
	영어	9	14.1
	불어	3	4.7
	태국어	3	4.7
	인도네시아어	5	7.8
	우드루어	12	18.8
학교	수도권	40	62.5
	비수도권	18	28.1
학위과정	석사	35	54.7
	박사	24	37.5
	석박사통합	2	3.1
유학형태	자비유학	6	9.4
	한국대학초청	21	32.8
	한국정부초청	15	23.4
	본국정부 및 기업파견	16	25.0

※ 결측값 존재, 기초배경 설문 항목 분석 중 일부 발췌

형태의 경우 역시 한국대학초청 및 한국정부초청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유학이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어 유학수지 개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 유학동기, 경로, 생활 및 기타 유학현황 분석

(1) 유학동기 및 유학경로

먼저, 한국에서의 유학결정에 관한 동기조사 결과 '관련 전공에 대한 지식습득'(30명)과 '졸업 후 좋은 직장 취직을 위해'(18명)가 전체의 7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곳 유학생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 유학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유학 대학 선택 동기에 따른 빈도 분석

<Table 8> Motivation for University Selection

구분	빈도(명)	백분율(%)
지인의 추천	26	40.6
다양한 장학금 수혜 기회	16	25.0
강한 학술연구능력	10	15.6
쉬운 지원 절차	2	3.1
기타	10	15.6

또한, 유학 대학의 선택 동기에 관한 질문의 경우 '지인의 추천'(26명)이 전체의 40.6%를 차지하고 있어 기존 졸업 유학생들에 대한 네트워크 조직 및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학교 신청 경로에 대한 질문에서 역시 '교수의 추천(28명)' 및 '졸업생의 추천(18명)'이 전체의 71.9%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학박람회를 통한 지원'의 경우 단 한명도 선택하지 않아 유학 박람회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전략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유학결정 시의 고민사항에 대한 질문의 경우 (<표 9>) '한국어 실력의 부족'(28명) 및 '학교 정보의 부족'(16명) 순 인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를 비롯한 대학당국의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장학금 및 생활비, 거주형태

두 번째로, 장학금 및 생활비, 거주형태에 대한 질문의 경우 대학 내 장학금(26명),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국내정부기관의 장학금(6명), 기타 국내 장학재단 및 기업 장학금(2명)으로 조사되어 국내 재원을 통한 유학이 53.1%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본국 정부(16명) 및 기타 기관(10명)에 의한 장학금 수혜의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장학금 및 기타 수혜금액에 대한 질문의 경우 '등록금 전액'(19명), '등록금+생활비'(41명)이 전체 대비 93.8%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혜금액의 월별 분석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 120만원 이하'(28명), '월 120만원 이상'(11명)이 전체 60.9%를 차지하고 있어 타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거주비용을 포함한 월별 생활비에 관한 질문 결과를 살펴보면, '월 40만원 이상 80만원 이하'(22명), '월 80만원 이상'(19명)이 전체 6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거주형태의 경우 학교제공 기숙사 체류가 46.9%(30명)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총체적인 유학생활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 '전혀 어려움 없음'(27명), '조금 어려움'(11명)이 전체 대비 59.4%임을 감안하였을 때, 금전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이공계 분야의 특성상 타 분야에 비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며, 정부 및 민간발주 연구프로젝트의 참여에 따른 인건비 역시 수혜하기 때문으로 판단되기에 타분야와는 차별화된 총체적인 유학생 재정지원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재원(정부 및 기타 장학재단)을 통한 재정적 해택의 경우 뚜렷한 제반사항(중복수혜 제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학 역시 유학생 인원 확충을 위해 무분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어학(영어) 현황

세 번째로 유학생활에 대한 일반현황 조사에 있어 대부분의 이공계 강의 시 사용되고 있는 영어에 대한 어학수준을 분석하였다.

먼저, 영어의 경우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8명), 좋음(34명)이 전체의 65.6%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영어 수학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공인영어시험(TOEFL, TOEIC, IELTS 등) 응시 여부의 경우 48.4%의 유학생만이 응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중 실제 학업과 관련있는 영어능력 평가로 분류되는 TOEFL(9명) 및 IELTS(8명)의 경우 전체 대비 26.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유학생활에서의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표 9>에서 역시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학업에서의 언어 장벽'(29명, 45.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한국 유학생활의 난해 사항

<Table 9> Difficulties of International Student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친구와의 고립	2	3.1
가족에 대한 그리움	9	14.1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10	15.6
재정 부족	8	12.5
학업에서의 언어 장벽	29	45.3
외국인에게 불합리한 제도	2	3.1
외국인 편견	1	1.6

이에 따라 앞서 조사된 바와 같이 출신국가 중 비영어권으로 구분되는 아시아 지역의 학생이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경우 이는 수업 이해도에 있어 저해요소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

다. 학업 및 교내외 유학생활 만족도

학습 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경우 <표 10>과 같이 조사되었다. 이에 학업 및 학습환경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의 경우 3.51로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 프로젝트 참여 정도에 관한 조사의 경우 2.96으로 조사되어 좀 더 활발한 연구프로젝트의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연구프로젝트의 특성상 한국학생들과의 원활하지 못한 언어장벽의 사유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공수업 및 강의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14개의 항목을 통해 질문하였는데 전체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준(4.13)으로 조사되어 전공수업 및 교수의 강의수준이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교

<표 10> 학습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Table 10> International Student Satisfaction of Their Studying Condition

구분	사례수	평균	Standard Deviation
전공에 대한 지성적 도전과 자극 여부(전공수업 흥미)	56	3.71	0.54
향후 본국 학생들에게 전공추천	56	3.50	0.92
연구실 상주 정도	56	3.91	0.53
연구실 구성원들의 친밀정도 및 외국 유학생에 대한 비차별	56	3.52	0.74
연구프로젝트 참여 정도(한국학생들과의 비교)	56	2.96	0.88
프로젝트를 통한 전공지식 향상 정도	56	3.48	0.88
Valid N(listwise)	56	3.51	-

* 결측값 존재

행정서비스 및 기타 유학생활 안내, 정부의 유학생을 위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1>과 같이 전체적인 학교 및 정부의 유학지원서비스와 기타 유학생활에 대한 만족이 평균 2.90으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대학의 유학생활 지원에 대한 표준편차가 타 만족도 질문에 비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각 대학별 지원서비스의 질이큰 폭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출신대학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일부 상위권대와 지방 대학간의 유학생 지원 서비스가 큰 차이(상위권 5개 대학 평균: 3.78, 하위권 5개 대학 평균: 1.98)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한국학생들과의 교류정도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학생들과의 교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인 교류수준은 2.71로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학생들과의 식사’, ‘한국학생들로부터의 정

보 습득(학업 외)(3.18)’ 등과 같은 표면적인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한국학생 가정 방문(1.75)’과 같은 내면적 교류의 경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관습 및 문화적 차별로 인한 한국학생들과의 갈등 여부(2.21)’,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경험(2.32)’에서와 같이 한국학생들 역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개방적 사고를 갖지 못하고 있기에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향후진로에 대한 조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졸업 후 향후진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13>과 같다. 이에 관련 질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국에서의 취직(3.56)’에 비해 ‘한국에서의 취직(2.78)’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국내대학 및 한국 정부 지원금을 통한 높은 장학금 수혜 비율에 비해 향후 국내 기업에의 취업을 통한 지속적 국가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상기 설문조사대상이 이공계열 석·박사 인력임을 감안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개선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11> 학교 및 정부의 행정지원서비스와 기타 유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Table 11> International Student Satisfaction of University and Government Policies

구분	사례수	평균	Standard Deviation
유학관련 대학의 지원 및 유학정보제공 정도	61	2.79	1.02
대학의 학사행정 정도	61	2.95	0.97
현재 주거 형태에 대한 만족	61	2.98	0.94
장학제도에 대한 만족	61	2.92	0.80
출입국관리소의 유학생 행정서비스	61	2.84	0.53
Valid N(listwise)	61	2.90	-

※ 결측값 존재

<표 12> 한국학생들과의 교류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Table 12> Extent of Social Relationship with Korea Students

구분	사례수	평균	Standard Deviation
한국학생들과의 식사	56	3.04	0.81
한국학생 가정 방문	55	1.75	0.89
한국학생들로부터의 도움(학업 외)	56	3.18	0.81
관습 및 문화적 차별로 인한 한국학생들과의 갈등 여부 ⁺	55	2.21	0.89
한국학생들로부터의 학업에 관한 도움	56	2.41	0.92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경험 ⁺	56	2.32	0.90
종교적 이유에 이한 차별 경험 ⁺	56	3.43	0.95
Valid N(listwise)	54	2.71	-

※ 결측값 존재, ⁺ 부정적 의미로 인해 역산 후 산출

<표 13> 향후진로에 대한 조사 결과

<Table 13> Future course of International Students Life

구분	사례수	평균	Standard Deviation
본국에서의 취직	50	3.56	1.09
한국에서의 취직	50	2.78	1.18
졸업 후 외국인 유학생들의 좋은 직장 취업 여부	50	2.30	0.89
졸업 후 본인 경쟁력 향상 여부	48	3.71	0.92
Valid N(listwise)	47	3.25	-

* 결측값 존재

<표 14>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련 개선 시급정도에 대한 범주별 중요도

<Table 14> Priority of Urgentness for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련 분야 (1.000)	재정적 지원	0.185	3순위
	대학의 지원사항 개선	0.417	1순위
	정부 지원사항 개선*	0.223	2순위
	교육과정 개선	0.175	4순위

* 정부 지원사항 : 재정적 지원을 제외한 비자업무, 건강보험 등 외국인유학생 지원 정책

바. 외국인 유학생 지원방향 도출을 위한 범주별 중요도 분석

본 절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방향 도출 및 전략수립을 위하여 AHP기법을 활용 각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대한 개선 시급정도에 대한 범주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에 이를 위한 문항의 구성은 가중치 산정을 위해 해당 조사자들에게 평가 항목 간 쌍대비교 형태의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Expert Choice 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표 14>와 같이 중요도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기구(국제협력실) 및 관련 대학정책, 시설 등에 대한 개선필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도 정부의 재정적(장학금 등) 지원을 제외한 비자발급 업무, 건강보험 등 외국인 유학생이 정착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개선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V. 공과대학 대학원 유학생 유학생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대학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외국인 유학실태 분석 및 지원방향 도출을 위해 국내외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지원제도 분석 등의 문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외국인 유학생활의 문제점을 각 관련기관 별로 정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정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은 기존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Study Korea Project)을 통하여 유학생 유치 확대에 대한 양적 성장에 있어서는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단기적 시각의 지원 정책이 대부분으로 판단되며, 유학생 생활환경 개선 및 취업지원 등의 지원 사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시설물 건립 사업과 더불어 유학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과 같이 유학생활 Life-Cycle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및 외교부 등의 정부 각 부처가 혼재되어 유학생 관련 정책의 입안 및 관리를 맡는 것이 아닌, 중국의 CSC 및 일본의 JASSO와 같은 별도의 지원기관 설립을 통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출입국 관리제도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건강보험 등 외국인 유학생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례로 홍콩 및 영국의 경우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우수 유학생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유기적인 프로그램 및 비자연장제도를 통해 우수인력을 졸업 후 산업으로의 자연스러운 유인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충을 꾀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역시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대부분의 공과대학 대학원 수업의 경우 영어를 통해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대다수가 비영어권으로 구분되는 아시아 지역의 학생이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학업에서의 언어 장벽 및 수업에 대한 이해도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일본유학시험(Examination for Japanese University Admission: EJU) 및 미국의 대학원 입학 자격 시험(Graduate Record Examination: GRE)와 같은 공인유학시험제도의 신설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확대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공적개발원조 중 유상원조 금액에 대해 향후 현금 혹은 현물 상환 금액 중 일정 비율을 ODA 수혜국의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 대학으로의 유학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 개선 및 향후 졸업생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학수지 개선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대학

앞서 조사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의 전공수업 및 교수의 강의수준은 일정 수준 이상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시스템 및 학교행정의 경우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전문적 외국인 유학생 지원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는 국제협력 지원부서의 경우 대학교육의 국제화 측면에서 팔복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다고 판단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학사정보 및 관련 유학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유학생 지원 전담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어학실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유학생 지원 업무의 경우 전문적

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 교직원의 경우 순환배치를 통한 인력 수급으로 인해 많은 한계점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기에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유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각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유학동기 및 유학경로를 분석해 보면, 졸업생 등지인의 추천에 의한 유학 대학 선택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그 어느 때보다 대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따라서, 미국대학의 사례조사와 같이 해당대학의 해외홍보, 해외에서의 발전기금 모금, 유학생 유치전략의 일환으로 유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각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 기회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대학의 노력이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취업 기회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기업은 장학금 및 인턴십 등을 지원하며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수 인력을 산업으로의 자연스러운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대학으로의 유학이 더욱 매력적이며, 궁극적으로 대학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대학에서는 한국학생들과의 교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홍보프로그램 개설과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친밀감 향상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배포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대학 국제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3. 학계 및 기타 유학지원기관

학계 및 기타 유학지원기관 역시 대학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

첫째, 민간재단 및 기업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시 중복수혜에 대한 제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공과대학 대학원 유학생의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장학금 중복 수혜와 더불어, 정부발주 국책연구 및 산업체 연구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인건비 수혜를 통해 등록금 및 일정수준 생활비 이상의 금액을 수혜받고 있

기애 이는 곧 상당량의 많은 재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시 중복수혜에 대한 제한 규정 신설과 더불어 기업의 경우 향후 취업 후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여 더욱 많은 수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과 더불어 국가경쟁력과 연계한 지원방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평가 시 대학의 국제화 평가항목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종합평가를 비록한 각 기관의 대학평가는 대학서열화가 일반화되어있는 국내 여건 상 각 대학이 역점을 두고 평가점수 향상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대학평가 항목 중 국제화 부분의 신설로 인해 국제화 부분 평가 항목인 외국인 유학생 수 확대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며, 어느 정도 그 효과를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제화 평가항목의 확대(외국인 유학생 지원시설, 지원 부서, 행정시스템 등)를 통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외국인 유학실태 분석 및 지원방향 도출을 위해 먼저, 외국인 유학생 확산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분석과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부의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외국인 유학생 지원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필요성에 따라 공과대학 외국인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유학실태 및 유학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의 경우 기준과 같이 외국인 유학생 확충과 관련된 정책이외에 유학생활 Life-Cycle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지원기관 설립을 통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한 공인유학시험제도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시

스템 및 학교행정 개선을 위해 전문적 외국인 유학생 지원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각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관리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산학 협력 제도 등을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 기회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한국학생들과의 교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홍보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대학 국제화를 꾀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재단 및 기업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 조사된 바와 같이 현재 장학금 수혜와 관련하여 많은 재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많은 수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과 더불어 국가경쟁력과 연계한 지원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학평가 시 대학의 국제화 평가항목의 다변화를 통해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중 공과대학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로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 일반화시키기에는 많은 한계점 역시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타 분야와는 상이한 환경에서 학업에 임하고 있는 이공계열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타 분야에 대한 추가연구를 통해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의 후속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원과정 뿐만 아닌 학부과정까지의 중장기적 연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학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외국인 유학실태 분석 및 지원방향 도출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확산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조사와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부의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외국인 유학생 지원제도 분석 등의 문헌조사 결과를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공과대학 외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련 개선방안을 각 관련기관 별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외국인 유학생, 유학실태, 대학의 국제화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2단계 두뇌한국21(BK21)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연구비를 지원해 주신 해당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김진표 외(2006),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제3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제1호 안건, 교육인적자원부 등 11개 부처, 5-6
- 김화영(2005),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활성화방안,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25
- 노종희 외(200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국가별·지역별 대학 마케팅 전략, 교육인적자원부
- 박은경(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10
- 안선민 외(2006),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계획을 위한 연구 -주거유형별 주거민족, 선호 및 요구를 중심으로-,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3(1), 32-33
- 엄혜경(2003), 국내 외국 유학생의 한국 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 5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12
- 유훼(2008), 강원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생활 실태조사 분석 연구,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12
- 이용석(2008),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의 유학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24
- 이은경(2006), 이공계 기피 현상을 통해 본 한국 과학기술자사회의 특성, 과학기술학연구, 6(2), 83-84
- 정환규(2002),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 개념·현황·쟁점·대응방안, 입법정보 78(1)
- 재외동포교육과(2008),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교육과학기술부, 15-18
- 최금해(2008),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학교생활과 사회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1), 116-121
- 최동선 외(2008),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와 추진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12
- 편상훈(2005), 지식정보화 시대의 직업 전망과 인력양성 방안, 울산대학교 출판부, 19-35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08), 여행수지 각 년도, [On-Line] <http://ecos.bok.or.kr>
- 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AEI)(2003), *Why choose Australia? Insights from a survey of international students who commenced study in 2000*, AEI-The Australian Government International Education Network, [On-line] <http://aei.gov.au/AEI/PublicationAndResearch/Publications/IndustryPublications.htm>, 10-35
- 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AEI)(2007), *2006 International Student Survey-Report of the consolidated results from the four education sectors in Australia*, AEI-The Australian Government International Education Network, [On-line] <http://aei.gov.au/AEI/PublicationsAndResearch/Publications/IndustryPublications.htm>, 12-19
- Deloitte(2008), *The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New Zealand: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national survey 2007*, Researched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On-line] <http://www.educationcounts.govt.nz/publications/international/22971>, 2-12
- ETS(2008), 미국 일반대학원 입학 자격 시험(GRE), [On-line] <http://www.ets.org>
- JASSO(2008), 일본유학시험(EJU), [On-line] <http://ejutest.com>

저자 소개



전영준 (Young Joon Jun)

2005년 한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졸업
2006년 동 대학원 토목공학과 석사수료
2008년 동 대학원 토목공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공학인증, 공학교육정책